



송하진 도지사가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26일 순창군을 시작으로 시군방문의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황숙주 순창군수와 함께 청년농부가 운영하는 참실이 달팽이 농장을 방문해 달팽이 농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절차탁마의 자세로 현장과 소통

송하진 지사, 순창 시작으로 시·군방문 대장정 돌입

송하진 도지사가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26일 순창군을 시작으로 시군방문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도민과 함께하는 시군방문은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들을 정성을 다해 성과를 거두는 첫해가 되도록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민선 7기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다.

3월 이후에는 완주군을 시작으로 6월까지 시군 일정 등을 감안하면서 매월 4~5개 정도씩 방문하여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군 첫 방문지로 정류산업과 관광산업을 융복합하여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순창 발효문화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현황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투자선도지구는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추장마을과

주변 연구소 등 산업지원시설에 새롭게 관광 체험시설을 연계하여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비 484억원 등 총 1,0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구내 사업추진 시는 인허가 간소화가 이뤄지고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원된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지구내 부처연계사업(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과 동부권특별회계,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되면 순창의 장류와 발효산업이 생산, 소비, 관광산업과 어우러져 순창군의 직접고용 효과가 142명에 이르고 관광객은 65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순창을 대표하는 전통장류에 관광과 체험시설을 접목하고, 미생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순창 발전을 이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장류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인계~쌍치(밤테터널 포함) 위험도로 개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와 순창군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오가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밤테터널을 포함한 인계~쌍치 구간(24km) 시설개량사업은 기재부와 KD에서 사업추진을 전제로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국토부(익산국도관리청)에서는 기 확보된 설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하반기 실시계획을 착수, 2020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교통, 농산물 유통 및 관광 인프라 구축확충과 함께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겨울철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의 교통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근대역사 테마관광코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도,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 선정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군산 시 선양동 해돋이 공원 일원에 조선인 주거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57개 사업이

신청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7월에 걸쳐 심사위원 6명이 현장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병행하여 사업을 보완하도록 했다. 21일부터 2일에 걸쳐 종합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전북도가 신청한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해돋이 공원의 근대 인문학 기행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배경인 해돋이공

원은 1899년 군산항 개항과 함께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으로서 일제강점기 시내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의 주거지였던 곳이다.

또한 근대문화의 대표작인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주인공이 살았던 배경으로 지역의 근·현대역사의 중심이 됐던 곳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도는 이곳의 작은 골목, 시멘트 계단, 축대 등 옛 모습의 흔적들을 재해 학생 및 지역주민의 역사와 문화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중국 청도 유턴기업 2곳과 투자협약 체결

익산 제3산단 패션단지 입주... 4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북도와 익산시는 26일, 중국청도 LK주얼리, 금정공예품유한공사와 익산 제3일반산단 패션단지 임대공장에 입주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 김영남 LK주얼리 대표, 김광제 금정공예품 대표, 민충기 민간유치단장, 방상명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LK주얼리(주)는 2013년에 중국 청도로 이전한 패션주얼리 업체로, 제품 전량을 미국 유명 브랜드에 직접 수출하고 있으며, 2018년도 60명 고용에 73억의

매출을 올렸다.

금정공예품(유)은 2008년에 중국 청도로 이전한 패션주얼리 업체로,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 제품 전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8년도 40명 고용에 20억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그간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국 출장 등을 통해 유턴기업의 도내복귀 저해 요소로 파악된 초기 투자비용 과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는 2019년도에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얼리 임대공장 2동(각 연면적 1,000㎡)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 임대공장이 완공되면 LK주얼리(주), 금정공예품(유)이

임대공장에 입주하여 총 4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남 LK주얼리 대표는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 제조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보다 나은 한국의 디자인 창출,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과 2018년도에 먼저 입주한 하이주얼리(주)의 사례를 보고 "지금까지의 경영 노하우를 살려 전라북도에서 유턴기업이 꼭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투자계획을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유턴기업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노인일자리 4만개 쾌속 추진... 조기 시행을 전국 최상위권

전북도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해 3만1,402개이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3만9,914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어르신 일자리를 추진해 현재 조기 시행율이 전국 최상위권 8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욕구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로, 시군 지방비 추가확보는 물론, 조기시행에도 성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분야와 어르신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등으로 어르신의 건강, 참여경력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는 등 시군의 실정에 맞는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도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노인일자리 안전도우미(2,826여명)를 연계하여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일

자리 1천개를 확보하여 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및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 공조하여 실버 카페, 식당 운영 등 노인들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지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혁신도시 악취개선 위해 모두가 '한마음'

악취모니터 요원 20명 위촉... 지역주민과 협치 통해 실시간 감시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 감시하고, 확산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 요원이 본격 활동한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20명(전주 10명, 완주 10명)을 위촉하고, 모니터링 운영 교육 및 간담회를 2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모니터 요원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악취 영향이 미치는 시기와 강도 등에 대해 매일 실시간 악취 발생 상황을 스마트폰 밴드에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사 당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 종류 및 강도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개인별로 직접 후각으로 감지하는 시험도 병행하여 모니터 요

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하반기에도 별도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모니터 요원들이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주변지역 일대 축산시설에 대해 악취 포집 등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조치하고, 추가로 탈취제 및 미생물제를 살포하도록 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 모니터링 결과와 비감 등 기상자료를 비교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발생 유무, 악취 확산 정도 등을 분석하여 익월에 주요 지점별 악취발생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

사는 "전라북도의 성장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하며, 올해에는 시·군과 협력하여 시설 밀폐화 등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예산과 달리 도 관련 실·국과 협업하여 축산시설 밀폐화·탈취제 살포 및 ICT 축산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에 202억원을 투자하여 악취발생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